

캠프 사역 이모조모



◦ 민다나오 사역지



3월 14일 오전, 민다나오 다바오의 캠프사역지에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이상화 대사님과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코이카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농민들과 함께 사업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캠프가 코이카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다나오 사업은 '다바오 마운틴아포 두리안농민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을 발전시키는 모델이며, 이 행사에 80여 조합원이 모여 다바오시의 아벨리아 농업시의원, 바랑가이 임직원, 민다나오개발청, 남부민다나오대학 등 협력단위들과 함께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딸락 사역지



작년에 이어 매해 딸락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한기범 농구교실팀은 2월 24일 '한기범과 함께하는 산호세 시장배 농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개 바랑가이에서 고등학생 팀들이 지역 리그를 거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팀을 가리는 농구대회로, 빌라 아그리바이팀이 13개 팀의 토너먼트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기범선수과 제자들로 인해 산호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 불라칸 사역지



익팅 봉제센터는 타워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프가 인큐베이팅한 1호 사회적기업 익팅봉제센터는 3월25일부터 봉제 무료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익팅봉제센터에서 함께할 조합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Beng Camua 후원으로 줌바댄스를 지역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엄마들의 아침을 깨우는 줌바댄스는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주어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마닐라 사역지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율가매장은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친환경 먹거리와 필리핀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합니다. 마카티매장은 고객들이 중고 장난감, 옷들을 기부해주면 5%할인 쿠폰을 주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옷과 장난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닐라에 있는 아동센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후원계좌 : KEB 하나은행 415-890009-19504 (사단법인 캠프)



캠프 후원하기 QR 바로가기

🇰🇷 캠프 본부 (한국)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28-1 (당산동6가) 3층
Tel : 02-3147-0309, 0310 Fax : 02-3147-0308

🇵🇭 캠프 아시아 (필리핀)

마닐라 : ORGA store, G/F, 115 Gamboa, Legazpi Village, Makati, 1229 Kalakhang Maynila
Tel : +63-2-8354-2858, +63-905-307-0911

불라칸 : Lot A-2, Upper Quarry, Barangay Minuyan proper,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딸락 : Sapang Kuran, Barangay Moriones, San Jose, Tarlac

민다나오 : Lagudas Farm, Purok 3, Brgy. Sirib, Calinan Dist., Davao City

홈페이지 : www.icamp.asia

메일 : campint@icamp.asia (필리핀) camp-ph@icamp.asia

블로그 : blog.naver.com/camplove11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amp.asia

인스타그램 : @camp_int

유튜브 채널 : 유튜브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카카오톡 채널 : 카톡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캠프 게더타운 : https://url.kr/9yca8



· 사단법인 캠프는 외교부에 등록된 국제개발협력 NGO이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회원입니다.

CAMP NEWSLETTER

아시아빈곤 선교센터



2024년 봄호 Vol.51



이철용 목사의 자립선교 이야기

민다나오에서 펼치는 탄소중립 농업 농민과 지역, 지구를 살린다.

이철용 목사 (사단법인 캠프 대표)



민다나오는 필리핀의 식량창고(Food Basket)라고 말합니다. 필리핀 전체 농산물의 절반 정도가 민다나오에서 생산되지만, 일부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리핀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다나오를 무슬림들의 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필리핀정부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가톨릭과 기독교가 70%이고 무슬림은 24%에 해당합니다. 물론 방사모라고 하는 지역은 이슬람 차지지역이지만 민다나오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캠프는 지난해 다바오의 열대과일 특별히 두리

안 농장 80여곳을 모아서 협동조합으로 조직하고 공동생산, 가공, 유통 전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두리안 농사의 위기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필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캠프가 농업활동을 하는 딸락의 경우 지난 4개월동안 단 한차례 한 시간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심해져서 필리핀 정부도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준비 할 정도입니다.

다바오의 경우 두리안 농사 지역은 비가 적게 와야 하는데 올해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꽃이 맺히는 시기에 비가오니 꽃이 떨어져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과육에 수분이 너무 많아져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땅을 죽이고 나무들이 병들어 갑니다.

캠프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서던민다나오대학 토양연구소와 함께 농장들의 토양을 분석하고 토양에 필요한 영양소와 유기농비료 등을 통해 땅을 살립니다. 매일 매일 모든 농장의 온도와 습도, 강수량을 측정해서 데이터화합니다. 버려지는 코코넛 껍질, 두리안 껍질을 이용해서 뿌리부분을 덮어줌으로써 수분증발을 막고 지렁이와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땅을 살리고 영양분이 뿌리로 가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맞는 두

리안 품종을 개발하는 실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탄소중립 농업의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농민들이 살고 지역이 살고, 우리의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프의 활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지구를 잘 보존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고통을 줄이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방법이며,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소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1 오산양일교회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

✎ 정효선 목사(청년부 담당)

비전트립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젊은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가 있는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데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넓히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 필리핀 비전트립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오산양일교회 비전트립은 1월21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빈곤선교센터(사단법인 캠프)의 필리핀 딸락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중고등학생 23명, 청년 17명, 장년 14명 총 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거의 교회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비전트립이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할까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밝고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현지 분들을 보면서, 현재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공간과 환경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심을 몸으로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껴

✎ 하민호 (고등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비전트립 소식을 듣고 선뜻 결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엔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고, 가요만 듣던 제가 찬양을 찾아서 듣게 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선교팀원들과 함께 하나님과 조금씩 친밀해졌습니다. 필리핀 사역은 학교사역 시 함께 찬양하는 일, 학교 친구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가서 일도 도왔습니다.

홈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언어와 환경이 달라 소통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으로 하나 된 우리는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친해졌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전트립 후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그 무엇보다 즐거워졌고 찬양을 찾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 과천교회

현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청년 비전트립

✎ 정중혁 목사(청년교구 담당)

과천교회 청년교구는 지역의 필요에 맞게, 지역과 함께, 지역을 위한 활동으로 현지인 목회자와 교인들의 생계를 돕는 사역을 병행하는 캠프 사역에 작년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19명이 아시아빈곤선교센터(사단법인 캠프)의 필리핀 딸락지역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팀 사역의 목표는 첫째, 현지인 농장 사역을 돕고, 둘째, 현지인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셋째, 필리핀 사역을 과천교회 성도들에게 잘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팀은 작년에 이어 아이다 소수민족 마뚱 교회 버섯 농장에서 버섯 생산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했고, 산 후안 데발데스 고등학교 학생들과 K-pop 댄스 교실, 태권도 교실, 부채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비즈 키링 만들기, 한국전통 놀이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역들을 잘 정리한 선교보고 영상으로 과천교회 성도들에게 사단법인 캠프를 소개했습니다.

과천교회 청년교구 사역이 마뚱 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실제적 도움을, 산 후안 고등학생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는 반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천교회는 계속해서 사단법인 캠프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후속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올해 필리핀 비전트립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적을

✎ 차재형(청년교구)

작년에 처음 사단법인 캠프 사역에 동참하면서 낯선 환경, 고된 노동,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와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돕는 캠프의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또 다시 사단법인 캠프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얻으면서 작년의 다짐을 떠올린 저는 현지인을 만날 때마다 "You Can Do It!"이라며 응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응원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려던 봉사에서 오히려 배우고 성장하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배우고 느낀 사랑과 감사를 생활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버섯 농장, 양계장, 마뚱 교회, 산 후안 데발데스 고등학교에서 했던 봉사들과 이철용 선교사님의 강의, 여러 간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을 얻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3 십자수공동체교회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향해

✎ 한현준(장로)

일회성이거나 단기기간의 선교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교회의 선교 방향으로 삼고 있는 십자수공동체교회는 설 연휴 기간인 2월8일부터 12일까지 총 9명이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캠프(아시아빈곤선교센터 이하 캠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의 이름을 '지가자'(지속가능한자립선교)로 정하고, 일정 시작 전 3주간 주일에 담임목사님과 함께 캠프의 설립 취지와 선교 방향, 현재 사업들을 공부하고 준비 해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타워빌 방문과 딸락 선교센터 방문, 딸락 농장방문, 지역유치원 방문,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하는 유산양 시설 방문 등이었습니다. 타워빌은 코로나팬데믹 전에 방문한 추억이 있던 곳이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는 타워빌에서 익팅(봉제공장)의 자립은 반갑고 기뻐지만, 다른 시설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 새로운 계획에 대한 말씀에 아쉬움을 기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딸락 선교센터 방문은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딸락 선교센터의 상징과도 같은 풍력을 이용한 풍차와 건축학교 학생들과 함께 짓는 건물, 유산양 하우스와 도정 시설, 그리고 딸락 농장의 드넓은 토지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캠프 사역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홍용석 집사님 부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딸락센터에 감격하였고, 그 감격은 우리 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유산양 농장 견학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는 일이라 더 관심이 갔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산양의 번식과 분양, 산양유 생산과 유동, 치즈와 산양유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식품 등의 제조와 체형 등의 단계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가 그만큼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돕는 일이 아닌 자립을 위한 길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며, 이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동참, 지지치 않는 선교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지가자 선교팀은 매일 저녁에 그날 보고 듣고 체험한 일들을 나누고 기도하며 더 나은 캠프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캠프의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십자수공동체교회의 성도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선교지의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번엔 함께한 지가자 선교팀원 모두 자립 선교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4 광주제일교회

비전트립 이후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어

✎ 최제민 전도사(영·유아·유치부 담당)

비전트립을 다녀온 제14기 광주제일교회 다니엘 선교학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자 하였습니다. 8주간의 강의와 캠프를 통한 훈련, 한 달 동안 사역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났던 1월14일부터 18일까지 36명의 선교팀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교팀은 현지학교에서 우리가 준비한 공연과 활동을 하면서 '서로 다름'은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발레테 교회 방문시, 더운 날씨에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전도와 가정심방, 거리찬양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발레테 교회 청년들이 사랑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기타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선교팀의 기타 기증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였고,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전트립을 통해 선교팀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에 감사했고, 현지 친구들의 건강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 자매가 되어, 이후에도 교회에서 더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까워졌습니다. 리더로 다녀온 저 역시 하나님이 붙들어주심을 느끼고, 사역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교학교를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나를 느껴

✎ 변민재(중등부)

저에게 '다니엘 선교학교'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였습니다. 다니엘 선교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또래 친구들과처럼 세상에 관한 의문과 고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의심과 거부감이 점점 생겨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그분이 정말 날 지켜보고 계신다면 왜, 날 도와주지 않는거지?'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화를 낸 적도 많습니다. 저는 다니엘 선교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신을 얻고 싶어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선교학교와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그 과정과 결과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추억과 경험을 쌓으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선교학교를 통해 저는 확실히 주님 안에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주실 비전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